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6. 16.(일) 11:00
(지면) 2024. 6. 17.(월) 조간

배포 2024. 6. 14.(금) 오후

연안해운의 두 마리 토끼 '안전성'과 '효율성', 선박 현대화가 지원합니다

- '연안선박 현대화 펀드' 상반기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(주) 등 4개 선사 선정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'연안선박 현대화 펀드'(이하 현대화 펀드) 상반기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(주) 등 4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하였다.

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,990억 원의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실버클라우드(완도·제주), 썬플라워(후포·울릉)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하였다. 아울러, 올해부터는 작년 8월에 수립한 「연안교통 혁신대책」에 따라 연안여객선 외에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.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,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,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.

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(주)는 올해 4월 29일(월)부터 5월 17일(금)까지 상반기 사업대상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며, 총 8개 연안해운선사가 지원하였다. 이후 현대화 펀드 투자심위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우수성,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(주), (주)디에스건설, (주)한유, (주)KHOS 등 4개 선사를 선정하였다.

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30~60%의 건조비를 펀드에서 지원 받게 되며, 선사는 3년 거치, 12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. 이번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선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해양수산부와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, 선사별 수요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, 수시 모집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올해부터는 연안화물선까지 현대화 펀드 지원이 확대된 만큼,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운항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안해운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	책임자	과 장	도경식 (044-200-5730)
	연안해운과	담당자	사무관	한정수 (044-200-5731)

참 고

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현황

□ 사업 개요

- (사업내용) 정부 출자를 통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부담을 결합하여 선박대여회사 설립 및 선박 건조
- (사업기간/펀드규모) '16~'27 / 3,000억원
 - * '16~'22년까지 2천억원 출자하여 연안여객선 건조지원/ '24년부터 내항화물선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추가 출자
- (지원대상/펀드운영) 연안여객·화물운송사업자/ (주)세계로선박금융
- (지원조건) 국내 조선소 건조 시 건조가의 최대 60% 무이자 지원
 - * 선박대여회사가 선주가 돼 선사와 장기 용선계약(15년)을 체결하고 여객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해 펀드 투자금 상환(3년거치 12년 분할상환)

구분	현대화펀드	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	자부담
선가 120억 초과	30%	산업은행 40% + 민간금융 20%(해진공 보증)	10%
선가 60억 초과 120억 이하	50%	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%(해진공 보증)	10%
선가 60억 이하	60%	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30%(해진공 보증)	10%

펀드 투자방식

